금주의 법구–〈장아함 반니원경〉
마음이 하늘을 만들고
지옥도 극락도 만든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7월 25일) 2021년 9월 1일 수요일

동국대 HK 10년 대장정 韓불교 세계화 기반 닦다

동국대 HK사업 마무리, 무슨 성과 남겼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숫자로 보는 동국대 인문한국(HK) 사업

10년	연구 수행기간
12명	동국대·타교 전임교원 배출 인원
246편	HK연구 통한 논문 게재 편수
43회	국내·국제 학술대회 횟수
25권	연구총서 발간 수(테마 한국불교 등)

'글로컬리티' 연구 아젠다로
국내외 학술대회만 40여 회
우수 연구 인재들 12명 배출
한·중·일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 협력 토대 구축해
'HK+'추진, 사업 계승 노력

동국대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이하 HK) 사업이 8월 30일로 마무리됐다. 우수 연구 인재 배출을 비롯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연구총서 발간과 연구 아젠다에 따른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추진해 온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 이하 HK연구단)의 지난 10년의 활동은 한국불교학의 세계화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동국대 HK연구단의 시작은 2011년 8월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연구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의 HK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다. '글로컬리티'는 글로벌리티와 로컬리티를 합성한 조어로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동국대 HK연구단은 한국불교의 '글로컬리즘'이 한국의 지역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10년간 조명해왔다. 또한 한국과 동아시아 찬술 불전에 대한 특화 연구들도 진행했다.

10년간의 성과는 뚜렷하고 명징하다. 당장 논문 편수가 이를 증명한다. 연구단은 10년 동안 HK아젠다 논문 A&HCI 15편, 우수등재지 18편, 등재지 167편 등 총 246편을 게재했다. 이는 10년 의무 논저 편수(3500만 원 당 1편)인 143편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국내외 학술대회는 총 43회(국내 13회, 국제 30회)가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현지에서도 진행됐으며 미국 UCLA, 듀크대, 캐나다 UBC 등과 연구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양한 연구총서를 통해 한국불교 고유성을 정립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연구단은 인문한국불교총서 〈테마Thema 한국불교〉 10권, 글로컬한국불교총서 10권과 영문총서인 'Humanities Korea Buddhism Series' 5권을 발간했다. 또한, 연구자의 HK 사사표기 연구서도 10권이 출간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추진한 '원효학 세계화 프로젝트'도 주목할만한 성과다. 당시 HK연구단은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원효 스님의 〈판비량론〉 단간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본 가나자와 문고와 공동으로 일본 소재 한국불교 문헌 사본 60종을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종욱 연구단장은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총서인 〈테마 한국불교〉 시리즈의 발간과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불교학 연구 학술활동을 활발히 펼쳤다"면서 "동국대, 북경대, 동경대, 대만대 등이 학술대회를 정례화 해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동국대의 HK사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다수 배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실제, 동국대 HK연구단을 거쳐간 12명의 연구자들은 동국대를 비롯해 일반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

현재 동국대에는 김용태, 김천학, 이자랑, 김호귀 교수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는 김영진, 박광현 교수가 임용돼 연구하고 있다. 타교 임용 교원으로는 조윤경(안동대), 이종수(순천대), 김기종(전북대), 고승학(금강대), 강호선(성신여대), 이수미(덕성여대) 등이 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 연구단장은 "HK지원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이라며 "연구 아젠다 추진 과정에서 12명의 전임교원이 배출된 것은 연구 인력 양성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탐구하는 동국대 HK사업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대가 우수한 HK 지원사업을 연장·계승하는 'HK플러스' 사업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동국대가 이달 말 'HK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7년 동안 HK연구를 연장·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연구단장은 "지난 10년 간의 연구가 통사(通史)적 측면에서 이뤄졌다면 'HK플러스'의 연구는 문헌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제세계유산축전, 화려한 개막 '2021년 백제세계유산축전' 개막식이 8월 13일 부여군 정림사지 특설무대 등 4개소(부여-공주-익산-KBS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열렸다. 비대면·무관중 방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된 이날 개막식에서는 '백제 1500년 찬란한 유산, 장인의 정신이 깃들다'라는 주제로 개막공연과 지역 가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사진은 부여 정림사지서 펼쳐진 개막 공연의 한 장면. 사진제공=부여군청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 미래 밝힌다

상월결사, 8월 26일 순례 전체 일정 공개

사부대중 98명, 순례단 참가해
三寶신앙 정립·미래포교 모색
포교 콘서트, 스토리텔링 공연도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대장정으로 펼쳐진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8월 12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사찰 천리순례 전체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일정 공개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도감 호산 스님, 순례단장 원명 스님, 박기련 지원단장, 순례단 조장 우봉, 설도, 법원, 성화 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9월 30일 송광사에 집결해 10월 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 통도사에서의 회향까지 5개 광역시도와 11개 시군을 통과하는 총 423km구간에서 펼쳐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주 자승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발원한 것은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알리고자 함"이라며 "특히 승보사찰 송광사를 출발지로 삼은 이유는 승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면서 "이 과정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불교에서 삼보사찰이 차지하는 의미와 인식이 정립되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삼보신앙 정립의 자리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10월 1일 승보사찰 송광사와 10월 9일 법보사찰 해인사, 10월 18일 불보사찰 통도사 참배를 통해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자리다. 삼보사찰 외에도 구례 화엄사, 남원 실상사, 밀양 표충사 등을 거치며 해당사찰이 지닌 문화와 역사 또한 체험한다.

이날 공개된 순례단은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이 25명, 우바새 17명 등 총 9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순례에서는 자비순례보다 확장된 지원단이 운영된다. 상황실과 운영실, 지원실 등 3실 11개팀으로 코로나19 방역팀과 안전팀, 기록영상팀과 부분순례지원팀도 신설됐다.

자비순례 때와 마찬가지로 묵언을 원칙으로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고, 대중은 염주를 착용한다. 상징기념물 및 배지도 매 순례 코스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삼보사찰 순례를 기념할 수 있다.

포교토크로 미래불교 논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10월 14일 대중공사를 포교박람회로 개최키로 했다. 포교박람회서는 뉴미디어 포교를 비롯한 포교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박람회에 참여한 이들이 자유롭게 논하는 포교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종단의 포교방향이 정해질 시점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불교 포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부곡에서 1박 2일간 순례단이 잠시 머무는 시간 동안 포교에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0월 2일 사성암에서 스토리텔링 공연, 10월 3일 화엄사 화엄음악제, 10월 9일 해인사 대장경 포쇄, 10월 16일 표충사 사명대사 다례제 및 호국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어진다.

상월결사는 인스타와 유튜브 라이브로 매일 2회 이상 중계하며 실시간 영문자막을 제공해 세계 많은 이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대중들의 모두의 일"이라며 "불자대중을 시봉한다는 마음으로 원만회향과 중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월결사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순례단 전원이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의 25km를 걷는 예비순례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국판변형/184쪽/값 12,000원

선어록의 백미·어록의 왕!
임제어록 역주
한국 선종의 원류를 만나다! 거침없는 말과 파격적인 언어로 선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임제 의현의 선풍과 종지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임제의현 저/강승욱 역/신국판/512쪽/값 27,000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리둥절 깨달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궁극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한 젊은이가 붓다의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며 자유인이 되는 과정을 수필처럼 그려냈다.
고정해 지음/국판변형/20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